

조선 시대 기록을 통해서 본 판옥의 정의에 관한 연구 - 한국고전종합DB의 판옥(板屋)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Panok in th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 Based on the Records Related to DB Pan-ock in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

김라니*
Kim, Ra-Nee

한동수**
Han, Dong-Soo

Abstract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the definition of the term pan-ock does not appear precisely in the dictionary, the definition of pan-ock was established through analysis by analyzing 183 cases of pan-ock searched in the Korean Classics DB and classifying them into buildings and ships. First of all, the 65 pan-ocks classified as architecture were used in various ways, such as residences, religious facilities, jang-pan-ocks, and prisons, depending on their use. Second, the 90 cases of pan-ock related to ships were the concept of houses that combine work and accommodation on ships. Finally, through military installations, literary expressions, and bureaucrats who have seen trains and wagons, Pan-ock uses boards. It can be used for walls or roofs only, or for both walls and roof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ase of the Joseon Dynasty with the definition of Pan-ock in the existing dictionary. In other words, Pan-ock refers to “houses, religious facilities, royal tombs, and prisons, with various uses and forms. In addition, it refers to the joining of only the wall or the roof with planks, or the joining of both the wall and the roof,” suggesting a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category.

주요어 : 판옥, 제주판옥, 석판집, 너와집, 판옥선, 한국고전종합DB

Keywords : Pan-ock, Jeju Pan-ock, Seog-pan-ock(slate roof house), Neo-wa-jib(wood plank house), Pan-ock-sun, Korean Classics DB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성종 12년(1481년) 『동국여지승람』(1481년)의 제주목 제영편에서 ‘판옥(板屋)’을 발견한 본 연구자는 이를 제주의 새로운 건축유형으로 판단하여 학위논문¹⁾에 언급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관노였던 민수의 기문에 “돌담과 판잣집은 백성이 사는 곳에 궁벽하고”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와가(瓦家)와 초가(草家)가 유일한 제주의 전통건축에 판옥을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후속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 한자어 ‘板屋’으로 검색하였는데, 총 646개의 문건이 나왔다.²⁾ 이중 번역이 완료되어 공개되는 고전번역서의 132건에서 건축 분야에 해당하는 42건을 분류하고, 다시 이중 외국의 사례를 뺀 19건을 추려내, 관노 민수의 기문을 기준으로 최대한 비슷한 9건을 찾아,³⁾ 제주 판옥이 실증했음을 증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색된 기록 간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달랐고 그래서 사전의 정의에 집중하게 되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판옥이란 “판자로 사방을 이어 둘러서 벽을 만들고 허술하게 지은 집, 판잣집”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고찰을 반영하기보다는 한국전쟁 중 군부대의 잉여 자재나 부서지고 무너진 건축물의 잔해 속에 폐자재가 된 널을 이용해 난민들의 임시 주거로 판잣집을 지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여러 자료에서 도시 빈민들이 허술하게 지은 집을 보통 ‘토막(土幕)집’이라고 하였지만, 판옥이나 판잣집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또한 실록 등의 여러 기록에서 ‘별목 금지령’이 자주 등장하고, 구한말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에는 유독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산들이 자주 보이는 등 나무도 귀하고, 그로 인해 관계도 귀했었다. 또한 판옥이라는 용어는 조선의 수군(水軍)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판옥선(板屋船)’은 “널빤지로 지붕을 덮은 전투선”으로 이때 ‘판옥’은 지붕을 올린다는 의미로 쓰였다.⁴⁾

한국건축용어를 정리해 놓은 대표적인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장기인의 『한국건축사전』에는 ‘판옥’이라 따로 정의한 것은 없지만, “①얇은 돌판으로 지붕을 이은 집. 너해집. 돌기와집. ②나무토막을 쪼개어 만든 널빤지로 지붕을 이은 집. 너새집. 널기와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dsham@hanyang.ac.kr)

1) 김라니, 제주 정의현(성읍)의 건축문화유산과 그 진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75-77.
2) 검색일 : 2020. 10.
3) 한동수, 김라니,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73, 2021, pp.11-13.

4) 김라니, 한동수,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관련 기록물을 통한 목조건축과 목선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4호(통권 83호), 2021, pp.83-84.

집(板瓦家).”으로 ‘너와집(石瓦家, slate roofed house)’을 정의⁵⁾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판(板)’을 나무뿐만이 아니라 ‘돌판’까지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과 ‘판옥선’의 판옥처럼 “널빤지로 지붕을 이은집”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판자로 벽을 만들어 지은집”과는 다르다는 대목이다.

이렇듯 판옥의 정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⁶⁾,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⁷⁾, 장기인의 『한국건축사전』에서 각각 다르거나 혹은 비슷한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건축사전에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또다른 대표적인 건축용어사전인 김왕직의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판옥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거나 그 유구의 수가 현저히 낮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고, 대중의 관심도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판옥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사전에서 정확히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조선이고, 그 시대의 기록을 통해서 판옥에 관한 당대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통해 판옥의 정의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제주 판옥에 관한 기록물이 조선 시대의 것이기 때문이고, 한국고전번역원의 공개된 번역 문헌들 또한 조선 시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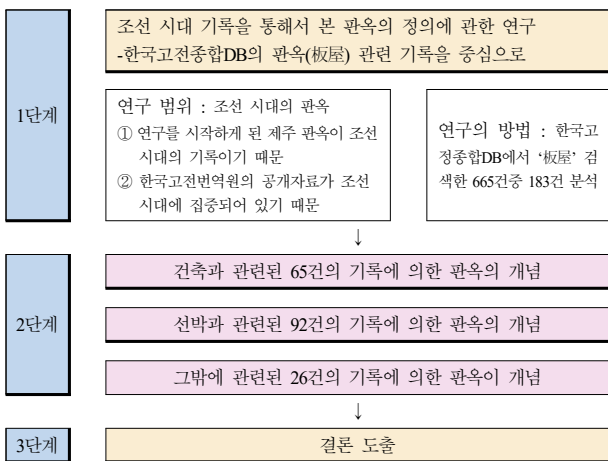


Fig. 1. Process of the Study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 ‘板屋’으로 검색을 해보면 총 665건의 문건⁸⁾ 그 결과로 나오는데, 본연구자가 조사를 시작한 2021년에 비해 19건이 늘어난 것이다. <Table 1>

Table 1. Pan-ock search in Korean Classics DB

구분	검색문건	비고
고전번역서	133	
조선왕조실록	35	
신역 조선왕조실록	1	
승정원일기	7	
일성록	3	
고전원문 전체	107	
한국문집총간 전체	351	
한국고전총간 전체	4	
그 밖에 각주정보 등	24	
계	665	

이중 우선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신역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고전총간 전체의 183건의 내용을 분석하여 작성된 내용과 목적에 따라 건축과 선박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이를 통해 당대 사람들의 판옥에 대한 인식과 판옥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자 한다.

Table 2. Analysis of Pan-ock search results in Korean Classics DB

구분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신역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고전총간전체	계
건축	살림집	13				4	17
	종교시설	5					5
	장판옥	14					14
	감옥	1			1		2
	외국사례	26	1				27
소계	59	1	0	1	0	4	65
선박	전선	16	28		6		50
	통신사전	13					13
	관선	1					1
	해외선박	8					8
	이양선	14	2	1		3	
소계	52	30	1	6	3	0	92
기타	군사시설	3	1				4
	군사시설(외국)	1	3				4
	시인용	9					9
	시적표현	1					1
	판옥인	4					4
	수레집	1					1
	기차	1					1
	벼루집	1					1
	판옥 or 통신사전	1					1
	소계	22	4	0	0	0	0
계	133	35	1	7	3	4	183

2. 건축과 관련된 기록에 의한 판옥의 개념

183건의 판옥 중 건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65건으로 살

5)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IV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2014, pp.20-21.
 6) 판옥,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10.05., <https://stdict.korean.go.kr/>
 7) 판옥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2.10.05., <http://encykorea.aks.ac.kr/>
 8) 板屋,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2022.10.05., <https://db.itkc.or.kr/>

림집 17건, 종교시설 5건, 장관옥 14건, 감옥 2건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외국사례로 일본과 유구국, 당나라의 판옥이다.
<Table 2>

2.1 살림집들의 기록을 통한 판옥의 인식 <Table 3>

판옥을 살림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 17건은 주로 시문으로 작자들은 학자이거나 관리 출신의 문인들이었고, 이들이 살고 있거나 부임한 곳에서 본 풍경과 감상을 주제로 삼았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판옥이 전국적으로 분포했음을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전기 문신 이승소의 시와 산문을 엮어 증중 9년(1514년)에 간행한 『삼탄집』중 제4권은 이승소가 충청도 관찰사로 제수 되었을 당시(세조 11년, 1465년) 관내를 순행하면서 읊은 시 100여편을 묶어 만든 것으로 이 중 “연풍으로 가는길”이란 시에 “나무 울에 너와집이 가끔가다 보이거니(樞籬板屋時時見)”라는 문장속 판옥은 나무울로 둘러 쌓인 충청도의 어느 집을 묘사한 것이다. 특히 한국고전번역원의 판옥 관련 기록 중 유일하게 판옥을 ‘너와집’으로 해석한 것(한국고전번역원 정선용, 2008년)이 특징이다.

초판본이 유실되어 현종 8년(1842년) 간행된 중간본이 전해지는 『허백당집』은 조선전기의 학자 성현의 시문집으로 판옥이 언급된 기문들은 모두 강원도 오색(7권), 평안도 벽동(12권), 평안북도 초산(13권)이라는 지역명도 함께인 것이 특징으로 고전번역서에 3건, 한국고전종합본 전체에 1건이 검색되지만, 이 중 2건은 “오색역에서 자다(宿五色驛)”가 중복된 것이다. 각각 산과 성안과 강변의 판옥을 묘사하고 있다.

『대곡집』은 선조 36년(1603년) 조선전기 문인 성운의 시문을 엮어 간행된 것으로 “시골에 살며 느끼는 감회를 읊다(村居述懷)”라는 시는 당시 충청도 보은의 속리산에 살던 작자 자신의 감상편으로 등장하는 판옥은 남향집으로 작자가 살던 집이다.

『해사록』과 『학봉집』2권에 실린 김성일의 시는 중복되는 것이지만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 이시는 임진왜란 발발 전 일본으로 가는 사행길에 국내에서 지은 것으로 지역은 알 수 없으나 규모가 작고 대창살과 흙담을 가진 판옥의 풍경을 담고 있다.

『어우집』은 유몽인의 시문을 엮은 것으로 순조 32년(1832년)에 간행되었으며 1권의 “강계 신광원에서 차운하다(江界神光院次韻 三首)”는 그가 평안도 순변어사로 제수 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왜란과 오랑캐(여진족)들로 인해 궁핍해진 백성들의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관리로서세금징수 등의 엄격한 일을 집행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판옥 역시 백성들의 궁핍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솔울타리 판자집은 그늘진 벼랑을 등지고 있고(松籬板屋負崖陰) 가을 산의 약초는 호상들이 캐어가고(秋山有藥胡商採)”라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촌집』은 문신 신희의 시문을 엮어 인조 8년(1630년) 간행된 것으로, 16권의 “즉흥을 읊다(詠事)”는 봉의산이라는 산명이 나와 강원도 춘천지역의 산골 판옥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주집』은 왕친의 후손으로 남인의 종장인 이문구의 시문집으로 간행 시기는 분명치 않다. 13권의 “정선 군수 박경응을

Table 3. Pan-ock: Housing search in Korean Classics DB

구분	작자	문집	제목	발췌한 내용	지역	
고전번역서	이승소 (세종 4 - 성종15, 1422-1484)	삼탄집 4권	연풍 延豊	나무 울에 너와집이 가끔가다 보이거니 樞籬板屋時時見	충청도	
	성현 (세종21 - 연산군10, 1439-1504)	허백당집 제7권	오색역에서 자다 宿五色驛	판자집은 외로운 산에 의지했는데 板屋倚孤峯	강원도 오색	
		허백당집 제12권	벽단전에 쓰다 2수 題碧巖閣二首	성안에 들쭉날쭉 들어선 판자집들 城裏參差板屋多	평안도 벽동	
		허백당집 제13권	옛 이산 역사에 쓰다 題古理山驛舍	푸른 돌 옆으로는 판자집이 들쭉날쭉 板屋參差傍綠堤 옛 성은 쓸쓸한데 오솔길이 나 있구나 古城寥落有荒蹊	평안북도 초산	
	성운 (연산군3 - 선조12 1497-1579)	대곡집	시골에 살며 느끼는 감회를 읊다 村居述懷	판자집 막 이루어지자 남쪽 장 밭고 板屋初成南圃明 새로 지은 봄옷은 입어 보니 가벼워라 新裁春服著來輕	충청도 보은 속리산	
	김성일 (증종32 - 선조26, 1538-1593)	해사록	차운산의 ‘문을 열고’ 차운하다	판옥이 작기가 배와 같음을 도리어 잊겠네 還忘板屋小如船 대창살과 흙담에 거둬 느낌이 있으니 竹籬土牆重有感	-	
		학봉집 제2권	차운산이 지은 ‘창문을 열고(拓窓)’의 운을 차운하다.	판자집이 배처럼 작은 줄을 잊겠네 還忘板屋小如船 대창살과 흙담에 거둬 느낌 있구나 竹籬土牆重有感	-	
	유몽인 (명종14 - 인조1, 1559-1623)	어우집 제1권	강계 신광원에서 차운하다 3수 江界神光院次韻 三首	솔 울타리 판자집은 그늘진 벼랑을 등지고 있네 松籬板屋負崖陰 가을 산에 약초 있어도 호상들이 캐어가고 秋山有藥胡商採	평안북도 강계	
	신희 (영종21 - 인조6, 1566-1625)	상촌집 제16권	즉흥을 읊다 詠事	봉의산 처 건너의 작은 시내 서쪽에 鳳巖山外小溪西 판자집 비스듬히 고목 언덕 잇닿았네 板屋斜連古樹堤	강원도 춘천	
	이민구 (선조22 - 현종11, 1589-11670)	동주집 제13권	정선 군수 박경응을 전송하다 送朴進善 慶應	소작농에 사람 드물어 판자집 가난하지 佃戶人稀板屋貧 궁벽진 산에 호랑이 많다고 하지만 任說窮山多虎豹	강원도 정선	
	박세당 (인조7 - 숙종29, 1629-1703)	서계집 제3권	후북정록 後北征錄	판자집 싸리울에서 말소리 들려오고 板屋柴籬聞語音 마을마다 연기가 시내 따라 자욱하네 村村煙火傍溪陰	함경도 금강산	
	체제국 (숙종46 - 경조23, 1702-1799)	변암집 제9권	말 위에서 읊다 馬上有吟	온천의 숨겨진 땅이 신령하다 들었는데 聞說溫泉秘地靈 박잎이 울타리 둘러 판자집은 푸르구나 龍葉籠籬板屋青	경기도 이천	
	홍직필	매산집 제2권	도연명의 시에 차운하여, 스스로 슬픈감회를 기록하다 過允女步瀾陽明 韻用自識感	두 개의 판자집을 세우고 板屋雙板屋 서로 지키며 일생을 마치려 하였는데 相守終百齡	-	
	한국고전종합본	황희 (광민왕12 - 문종2, 1363-1452)	신증 동국 여지 승람	강계도호부 江界都護府	민풍이 순박하고 간략하다. 황희의 시에, “땅은 궁벽한데 풍속은 어찌 순박 하고 간략한가, 판자집으로 하여금 빛소리만 많게 하는구나.” 하였다 民風朴略, 黃喜詩: “地僻民風何朴略? 更說板屋雨聲多 하였다	평안도
			동국 여지지	강계도호부 江界都護府	민풍이 순박하고 간략하다. 황희 시에 판옥이 있는곳에 화전을 일군다 하였다 (※본연구자 일의해석) 民風朴略, 本朝黃喜詩, 板屋火耕.	평안도
		관노민수 (예종1-성종8, 1469-1477)	신증 동국 여지 승람	제목미상	도근원이 살렸으니 조수가 긴범이요 都近川肥潮長夜 돌담과 판자집은 백성사는 곳이 궁벽하다. 石墻板屋民居僻	제주도 도근원
	성현 (세종21 - 연산군10, 1439-1504)	신증 동국 여지 승람	회양도호부 淮陽都護府	『신증』 깊은 수물에 판자집을 열었는데 성현의 시에, “높은 산길을 다 지나 어지러운 나무 사이를 비스듬히 뚫어내니, 깊은 수물에 판자집을 열었으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말안장을 내리네. 골짜기가 깊숙하니 구름은 항상 어둡고 산이 높으니 기운이 이러도 차구나. 서울이 여기서 몇 리인가. 돌아가는 꿈만이 날마다 밀고 아득하네.” 하였다 [新增] 深林閉板屋, 成現詩: “歷盡崖崕逕, 斜穿亂樹間, 云云, 過客卸鞍鞍。 。谷邃常常暗, 山高氣尚寒, 京師知幾里? 歸夢 日漫漫。”	강원도 회양	

전송하다(送朴旌善 慶應)”에서 강원도 정선 지역의 판옥을 소작농이 사는 집으로 가난하다고 하였다.

조선후기 소문계 학자이자 문인인 박세당의 시문집인『서계집』3권의 “후북정록(後北征錄)”은 1688년 봄 함경도 순영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풍악에 들렀을 때 지은 시로, “판잣집 싸리울에서 말소리 들려오고(板屋柴籬聞語音) 마을마다 연기가 시내 따라 자욱하네(村村煙火傍溪陰)”이라는 대목은 계곡은 깊지만 인가가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변안집』은 문신 체제공의 시문집으로 그의 사후 정조에 의해 직접 간행되었는데, 9권은 이천 도호부사로 제수 되었을 때 지은 것들로, 이천의 풍속이 주된 내용이다. 이중 “말 위에서 읊다(馬上有吟)”에서 이천의 판옥은 “박잎이 울타리 둘러 판잣집은 푸르구나(藪葉籠籬板屋青)”라고 하였다.

고종 3년(1866년) 간행된 『매산집』학자 홍직필의 시문집으로 2권의 “윤여의 무덤을 지날 적에 도연명이 지은 ‘중제 중덕의 죽음을 슬퍼하여(悲從弟仲德)’ 시에 차운하여 스스로 슬픈 감회를 기록하다(過允汝宅步陶淵明韻用自識感)”에서 죽은 친구와 고향으로 돌아가 두 개의 판옥을 세우고 살자는 약속을 떠올리는 내용이다. 이때 판옥은 평범한 시골집을 의미한다.

성종 12년(1481년) 간행된 조선전기 대표적인 관찬지리지『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하여 중종 25년(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효종 7년(1656년) 실학자 유형원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 전국지리지『동국여지』에서 황희의 시가 중복되어 나오는데 기록물간의 시간차와 관점에 따라 원문에 대한 기록이 일부 다르고 해석도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강계도호부의 풍속에서 “민풍이 순박하고 간략하다. 황희(黃喜)의 시에, 땅은 궁벽한데 풍속은 어찌 순박하고 간략한가, 판잣집으로 하여금 빗소리만 많게 하는구나 하였다.(民風朴略。黃喜詩：“地僻民風何朴略？更教板屋雨聲多。)”고 되어있다.

『동국여지』의 강계도호부의 풍속에는 “민풍이 순박하고 간략하다. 황희의 시에 판옥이 있는 곳에 화전을 일군다고 하였다(民風朴略。本朝黃喜詩。板屋火耕。)”고 되어있다. 강계는 평안도에 있는 것으로, 판옥과 화전을 연관 지어 놓았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를 시작하게 만든 관노 민수의 제목미상의 기문이다.

다. 이에 반해 그의 제자인 김일손은 지리산 속 여러 암자와 사찰, 승려와 신도에 관련된 기록을 많이 남기며 ‘성모상’이라 쓰고 사찰건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들보다 한참 후대인 인조 1년(1623년)에 지리산을 유람한 성여신는 유람시를 통해 이 시설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Table 4. Pan-ock: Religious search in Korean Classics DB

성격	작자	문집	제목	발췌한 내용	지역
사당 : 성모묘	김종직 (세종13 - 성종23, 1431-1492)	동문선 제21권	두류기행록	(중략) 석문(石門)을 경유하여 올라가는데, 발에 밟히는 풀과 나무가 다 얼음이 뿔뿔였다. 성모묘 에 들어가 다시 잔을 올려 감사를 드리기를, (중략) 해공(解空)과 더불어 북두(北斗)에 오르니, 태허(太虛)는 벌써 판옥(板屋) 에 올랐다. (중략) 시내 위에 두어 칸 되는 초막 이 보이는데, 가시 울을 두르고 흙으로 만든 아궁이가 있으니, 바로 매(鷹) 를 잡는 막사다. 나는 영랑재(永郎臺)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강안(綱鰲)의 곳마다 매 잡는 기구를 설치해 둔 것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생략)	지리산
				(중략)성모묘에 들어가서 다시 술잔을 올리고 사례하기를(중략)이여 극, 해공과 함께 북두(北斗)를 올라가니, 태허는 벌써 판옥(板屋) 에 올라가 있었다.(생략)	
사찰 : 석상집	김일손 (세조10 - 연산군4, 1465-1498)	동문선 제21권	속두류록	(중략)한 봉우리를 만났는데, 이름은 세존암(世尊巖)이다. (중략) 5리쯤 가서 법계사(法界寺)에 당도하니 (중략)올라가서 돌이 있는데 매 같기도 하고 문짝도 같다. 그 돌을 경유하여 나가는데, 길이 높고 구부러지고 오목하고 울퉁불퉁하며 석각(石角)을 붙들고 나무뿌리를 더위잡고 겨우 봉 꼭대기에 당도하자 곧 안개가 사방에 끼어 지척을 구별할 수 없었다.(중략) 저물 적에 봉의 절정에 오르니, 정상에 전루가 있어 겨우 한 칸의 판옥(板屋) 을 용납하고 판옥 안에는 여자의 석상(石像) 이 있는데, 이른바 천왕(天王)이다 . 지진(紙錢)이 어지러이 들보 위에 걸리고, 또, “송선(尙善) 김종직(金宗直)· 계은(季鰲) 고양(高陽) 유호인(兪好仁), 극기(克己) 하산(夏山) 조위(曹偉) 태허(太虛)가 성화(成化) 임진 중추일(中秋日)에 함께 오르다.”라는 몇 글자가 적혀 있다.(생략)	지리산
-	성여신 (명종1 - 인조10, 1546-1632)	부사집 제2권	두류산유람시	(중략)천왕봉 위에 또 성모사가 있는데 天姥峯上又有聖母祠 세속에서 전하길 고려 태조 어머니가 俗傳高麗太祖母 죽어서 신이 되어 이에 의탁했다고 하네 死而爲神比歸託 어떤 이는 석가를 낳은 마야부인이 或云釋迦之所誕摩耶夫人(생략)	지리산
사찰 부속 건물	윤휴 (광해군9 - 숙종6, 1617-1680)	백호전서 제24권	풍악록	(중략)그 재에서 출발했는데 중들 말에 의하면 내수재를 안문(閤門)이라하고 한다. (중략)길은 평탄했으나 혹 걸어야 할 곳도 있었다. 그리고 시내를 따라 가노라면 수석이 맑고 아름다운 곳도 있었다. 한 곳에 다다르니 쉬어갈 만한 몇 칸짜리 판옥(板屋) 이 있었는데, 하산할 때 점심 먹는 곳 이라고 중이 말하였다. 내산(內山)에는 사찰은 많아도 중들의 생활이 모두 빈곤하여 견여를 매는 중들도 각 사찰에서 모이곤 하였으나, 여기 외서는 모두가 유점사 중들이며 매는 솜씨가 짙고 빨라 마치 준마(駿馬)가 낮익은 길을 달리듯 하였다. (생략)	금강산

2.2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을 통한 판옥에 대한 인식<Table 4>

종교시설, 장판옥과 감옥과 같이 살림집 이외에 다양한 판옥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Table 2>

종교시설로 사용한 판옥은 유교의 사당과 불교의 부속 건물이나 시설물 등으로, 5건 중 4건은 지리산의 ‘성모묘’ 혹은 ‘성모상’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방문한 순서대로 살펴보면, 김종직은 성종 3년(1472년)에 이곳을 유람하였고 그 기행록은 『동문선』 21권과 『점재집』 2권에 실렸다. 당시 그는 ‘성모묘’라 쓰고 사당으로 보았으며 판옥은 사당과 관련된 시설로 기록하고 있

9)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본 없이 원문공개만 되어있어 본 연구자가 임의로 번역한 것임.

김종직의 기행문에 ‘가시 울을 두르고 흙으로 만든 아궁이가 있는 두어 칸 초막’이 나오는데 매를 잡는 막사라 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의 산속 막사의 한 종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윤휴의 『백호전서』24권의 ‘풍악록’에는 금강산에 있는 임시휴계소로 사용하는 몇 칸짜리 판옥을 기록하고 있는데, 승려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찰의 부속 시설물로 분류하였다.

‘장판옥’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단종의 능인 장릉의 부속 건축물로 『각사등록』·‘강원감영기록’에 실려있다. 순조 31년(1831년)부터 철종 12년(1861년)까지 총 14건으로 장릉 관리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감옥’의 기능인 판옥은 고전번역서에 1건, 승정원일기에 1

건이 나온다. 고전번역서의 1건은 구한말 문인 조공섭의 시문 집인『암서집』5권에 실린 아래와 같이 옥중 시로 기미년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투옥되었을 때에 쓴 것이다.

“**(중략)**보리 추수할 철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麥秋天氣雪淒淒) 판잣집엔 불기 없고 쇠사슬 낮게 쳐져(板屋無烟鐵鎖低)(생략)”

이 시는 일제강점기의 것이지만, 작자인 조공섭은 조선의 문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의 인식 또한 조선 시대가 가깝다고 판단하여 포함 시켰다.

영조 즉위년(1724년) 12월 27의 『승정원일기』에 “진수당(進修堂)에서 소대하는 자리에 동지경연사 이세최(李世最) 등이 입시하여 《자치통감강목》을 진강하고, 영동(嶺東)에서 해동청(海東靑)을 바치는 폐단 등을 논의하였다” 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기사에 따르면 판옥은 나무판으로 만든 협소한 감옥이다.

이광보가 아뢰기를, ”여러 궁방과 각 아문의 차인(差人)이 민간에 끼치는 폐단은 실로 몹시 참혹합니다. 신이 흥양에 들렀을 때 들으니, 수진궁(壽進宮)과 기로소(耆老所)의 차인이 세금을 거두고자 와서는 만약 바로 수량대로 내지 않으면 판옥(板獄)을 만들어 가두었는데 백성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잠시도 건디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판옥은 나무판으로 만든 감옥으로, 그 속에 앉거나 누울 수도 없이 겨우 서 있을 정도로 만들어 실로 서서 죽을 염려가 있기때문에 백성들은 전답이나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온 힘을 다해 수량대로 납부하고는 그대로 유망민이 됩니다. 이러한 혹형은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생략)”

2.3 외국의 사례를 통한 판옥의 인식<Table 5>

외국의 사례는 주로 일본을 사행한 사신들의 기록이 대다수로, 일부는 선박의 판옥일 수도 있는 모호한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유구국과 일본으로부터 귀환한 표류인들의 귀국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으며 이는 『성종실록』에 실려있다. 정치서인 정인지의『치평요람』에는 당나라 희종의 일화가 실려 있는데, 그것 자체도 역사이므로 외국의 사례로 판단하였다.

고려 우왕 3년(1377년) 정몽주가 붕명 사신으로 일본에 갔을 때 지은 시 ‘매화 핀 창가엔 아직 봄빛이 이르고(梅窓春色早) 판자집이다보니 빗소리가 유난하다(板屋雨聲多)’가 『동문선』, 『정포은봉사시작』, 『포은집』에 각각 실려있으면, 이 3건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 시가 13건으로 이 중 4건은 판옥에 있는데 비가 내리는 와중에 비슷한 상황의 시를 지은 정몽주의 시를 인용한 것이고, 그에 반해 9건은 단순히 시만 인용한 것이기에 4건은 건축에 포함 시켰고, 9건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건축으로 분류된 4건 중 2건은 조경의 시가 『동사록』과 『용주유고』에 각각 실린 것이므로 실제로 3건이다. 이들은 판옥을 빗소리라는 청각적인 요소로 인지하였다. 또한 정몽주는 자신의 고향집을 남루한 ‘오두막(弊廬)’으로 표현하였다.

그 외 일본의 판옥들은 관사와 사신들의 숙소는 물론 일반인들의 살림집, 숙박시설, 군막, 무대시설, 사찰과 신사의 건물, 성

Table 5. Pan-ock: Foreign case search in Korean Classics DB

성격	작자	문집	발췌한 내용	지역
속소	정몽주	동문선제10권	고국 땅은 바다 서쪽 언덕인데 故國海岸 외로운 배는 하늘 한 가도 떠 가네 孤舟天一涯 매화 핀 창가엔 아직 봄빛이 이르고 梅窓春色早 판자집이다보니 빗소리가 유난하다 板屋雨聲多	일본
		정포은봉사시작	홀로 앉아서 긴 날을 보내려니 獨坐消長日 피로운 집 생각 건달 수가 없구나 那堪苦廬家 꿈속에도 고향의 옛집을 땀들건만 夢裏猶林街弊廬	
		포은집		
속소	장흥중	동사록	4월(을유)참음. 돌 언덕 위에 한 칸 판옥(板獄)이 있으니 이들은 주길사(住吉寺)인데, 곧 기도하는 곳이었다. 포구 안에는 큰 마을이 있는데,	일본
산성관	조경	동사록	판자집 빗소리를 어찌 비로소 경멸하니 板屋雨聲今輕	일본
		용주유고	오천선생 시용이 과연 신필이로다 烏川詩律入神功	
군악	유상필	동사록	윤 3월 17일 도금도예(都禁徒夜) 1인은 대문 밖에 판옥(板獄)을 설치하여 숙적하고 밤이 세도록 조두를 두드리며 잠자지 아니하였다.	일본
마도사관	오윤겸	동사상 일록	판자집이라 빗소리 많다는 포은의 시를 板屋雨聲聽盡詩 평생 두고 읊어도 좋은 줄 몰랐더니 平生曾誦未會知 만편이라 이젓날 진경을 만나 보니 昨來滿館逢眞境 이때가 그때란 것 비로소 알았나오 始覺當時即此時	일본
			무대 시설	
속박 전용	속박 전용	임광	16일(병진) 맑음 잠자리에 들어 막 3시에 이르자 비가 물을 붓듯 내렸는데, 포은의, '판자집에 빗소리 요란하다.' [板屋雨聲匆]라는 시구가 곧 이것을 읊은 것이다.	일본, 경포(京浦)
			12월 21일(신묘) 맑음. 판옥(板獄) 수백여 칸은 다 새로 지은 것인데, 재목은 강호에서 운반하고 비용은 면여 낭이나 들었다 한다.	
절집	이경지	부상록	정사년(1617. 광해군 9) 7월 9일(신미) 포구에 반을 못 가서 원쪽 언덕 위에 판옥(板獄) 하나를 짓고 신사(神廟)를 설치했는데, 주길사(住吉禰)라고 했다.	일본
살림집	남용의	부상록	6월 14일(경묘) 판자로 지은 집 쓸쓸한데 대(竹)로 사림을 하였네 板屋蕭條竹作廬 천 리 대마도에 풍도가 다르니 千里馬州風土別	일본, 대마도
			7월 26일(무신)맑음. 오랑캐 백성들은 판자로 집을 지었네 蠻賊板作家	
			8월 3일(갑인) 모래 언덕에 비가쳐 뒤에 남은 빗방울 떨어지네 雨滴沙岸落口窪 쓸쓸한 판옥에는 밤 짓는 연기가 적고 蕭條板屋炊煙少	
살림집	송희경	일본서록	9월 4일(을유) 채색 배가 푸른 바다 어귀에 돛대를 연하였는데 彩帆遊器碧海津 나룻가에 판옥이 비비저런 다다다다 불었네 津頭板屋更燐燐	일본, 삼천주 彌津州
			4월 16일 높고 낮은 판자집 벌집 같은데 高低板屋若蜂窠	
살림집	이현영	일사정략	5월 1일 구름 같은 판자집 왕주를 들렸으니 雲屯板屋擁王州	일본
			7월 22일 판자집 사림문이 향을 불듯 열렸네 板屋柴扉向水開	
살림집	김성일	해사록	8월 14일 터전에서 중추 만나 석성을 바라보니 客裡中樞見石城 중의 창 판자집에 빗소리 들리네 僧窓板屋雨來聲	일본, 단과사
살림집	신유	해사록	4월 28일(기미) 철도국에 가서 화륜차를 뒀다. 철관교(鐵橋)를 철교를 세 군데 지냈는데 길이는 수백 보씩 되었다.(중략) 인가는 거의가 판옥(板獄)이나 초가로, 마을 모습이 쓸쓸했다.	일본
살림집	김성일	해사록	끝없는 판자집들 땅에 바짝 붙어 있고 漫漫板屋隳厚地 사방으로 뻗은 길은 가로 세로 통해 있네 四達關關徹後街	일본
살림집	신유	해사록	판자집이 잇달았고 채소밭이 뿔뿔한데 板屋連綿園圃密 관나무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구나 椶林藤樹自相紉	일본, 대마도
유수 시설	정인지	치평요람	희종(僖宗) 광개(光啓) 2년 밤이 되어 임지로 와서 판옥(板獄) 아래에서 유숙하였는데, 희종이 왕건의 무릎을 베고 잤다.	당나라
살림집	성주집	성종실록	인가(人家)는 건축 개와(蓋瓦)였으나 판옥(板獄)도 매우 많았습니다.	유구국
주(州)의 태수는 젊은 판옥(板獄)으로 매우 장엄하고 화려하였으며 항상 집에 있으면서 공사(公事)를 보았고, 재선은 넉넉하고 많으며 준마(駿馬) 몇 필이 있었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긴 칼을 메고 있는 자 20여 명이 항상 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의 집 등 다양한 형태와 쓰임새를 갖고 있었다.

3. 선박과 관련된 기록에 의한 판옥의 개념

선박과 관련된 판옥의 검색수는 총 92건으로 50건은 수군 전선이고, 통신사선 13건, 관선 1건, 외국에 가서 목격한 외국선박이 8건, 국내에 표류했던 이양선이 20건이다. <Table 2>

조선 수군의 전력함이 판옥선이었기 때문에 검색수도 높지만, 대부분은 언급 정도의 문건들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전란 발생으로 인한 보고 건수가 높아 판옥선이 언급되는 횟수도 많았다. 고전번역서의 16건중 4건의 경우에는 전선의 구조나 규모 그리고 용도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해동역사』나 『간재집』 배 위에 설치한 판옥이 전투 발생 시와 비 전투상황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Tabl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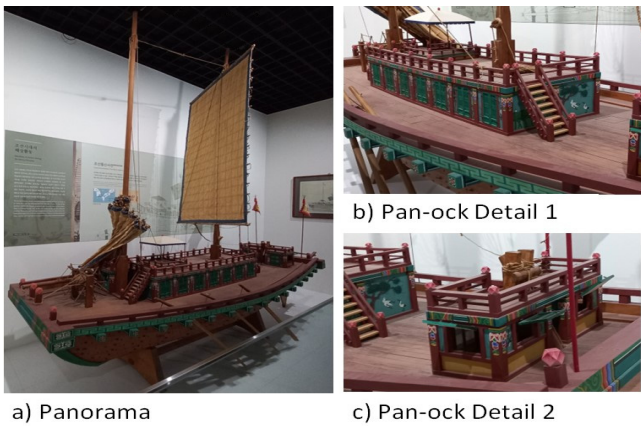


Fig. 2. Joseontongsinsaseon model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Date of shooting : 2021. 10)

통신사선은 사행으로 일본을 다녀오는 사신들이 이용한 배로 여기서 판옥은 단순히 판옥선이라 불리는 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업무와 숙박의 기능을 하는 집의 개념이다. 이는 업무를 보기도 하고, 높은 파도로 멀미로 고생했거나 망월례를 치르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때론 술을 나눠마시고 시를 짓는 등의 배에서의 일상을 그들의 시문이나 일기로 남겼기 때문에 추정해볼 수 있다. 특히 『동사록』의 ‘화방누선설’을 통해 조경은 판옥의 크기와 실구성의 설명과 판벽을 구분하였고, 유상필은 일기를 통해 통신사선의 화려한 외향을 묘사했다. 『수창록』에서는 조엄이 비로 인해 유달리 시끄러운 판옥과 판옥에는 처마가 없음을 시로 남겼다. <Fig.2>

관선은 1건으로 현종 15년(1674년), 숙종 즉위년에 간행된 이식의 시문집인 『택당집』 6권에 ‘선벽(船壁)에 제한 시 2수’가 아래와 같이 실려있는데 해운판관이 사는 집이 관청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 해운 판관님은 사는 집이 바로 관청(運判官爲室) 날렵

Table 6. Pan-ock: Battleship search in Korean Classics DB

작자	서명	발췌한 내용	비고
김상철	국조보감 제62권	○통영(統營) 및 각도의 수영(水營)에 명하여 해골선(海鰐船)을 만들도록 하였다. 당초 우리나라의 전선(戰船)은 모두 3층의 판옥(板屋)과 4면의 순창(順窓)을 설치하여 몸체가 커 문하기 때문에 바람을 만나면 파선하기 쉬웠다. 이때 이르러 전라 좌수사 전운상(田雲祥)이 《무경(武經)》의 절요사(節要書)를 참고하여 해골선을 처음 만들었다. 그 제도는 앞이 크고 뒤가 작아 송골매의 모양과 같고, 뱃전의 좌우에 부판(浮板)을 설치하여 송골매의 양쪽 날개 모양을 나타냈다. 이에 바람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다 또 매우 가볍고 빨랐다. 안에서는 밖을 엿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엿볼 수 없어 노군(櫓軍)과 사수(射手)가 모두 몸을 숨기고서 노를 젓고 총포를 쏠 수 있었다. 이에 연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니, 상이 따르고 마침내 각 수영에서도 따라 행하도록 명한 것이다.	
이항복	백사집 제5권	○의정부우의정 제도도체찰사(議政府右議政諸道都體察使) 겸 도원수(都元帥) 신 이항복(李恒福)은 삼가 말씀드립니다. 신이 여러 해를 병들어 누웠다가 폐인(廢人)이 다시 기용되어 중군(從軍)하게 되었으므로, 천은(天恩)에 감격하여 예저 사방 길에 올라서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와 동문서주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중략). 우리 나라의 전선(戰船)은 위에는 판옥(板屋)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방패(防牌)를 설치하며 용부(用夫)는 1백여 명이나 되어 얼얼히 하나의 작은 성벽(城壁)을 이루는데, 한 배 안에 탄 백부(百夫)의 목숨이 오로지 선장에 달려 있으므로, 선장이 적합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모두 그 실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말하자면 주진(舟楫)이 아무리 견고하고 기계(機械)가 아무리 정밀하고 격부(格夫)가 아무리 용감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용장(勇將)을 얻은 것만 못하므로, 스스로 배를 거느리는 각포(各浦)의 변경(邊境)들은 우선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한치윤	해동역사 제29권	○ 조선(朝鮮)의 배는 그 모양이 정자(亭子)와 같다. 위에는 띠를 붙여서 덮었고, 아래에는 무늬가 있는 자리를 깔았으며, 기둥과 대들보, 사까래는 단청이 찬란하다. 사면은 모두 가렸으며, 흰 장막을 드리웠다. 《언록담어(假談談錄)》 ○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전라도 좌수사(全羅道左水使)가 되어 왜적이 장차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는, 지혜를 써서 큰 배를 만든 다음, 배 위는 판자로 덮고, 판자 위에는 열십자로 좁은 길을 내어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모두 칼송곳(鎗刀)을 깔았다. (중략) 좌우의 포관(鋪管) 아래에 방이 각각 12칸이 있는데, 2칸은 철물(鐵物)을 보관하고, 3칸은 화포, 활, 화살, 창, 칼 등을 보관하며, 19칸은 군사들이 쉬는 장소로 삼았다. 왼쪽 포관 위의 방 1칸은 선장(船將)이 거처하고, 오른쪽 포관 위의 방 1칸은 장교(將校)들이 거처한다. 군사들은 쉴 때에는 포관 아래에 있고, 싸울 때에는 포관 위로 올라와, 모든 포 구멍에 대포를 대어 놓고 쉴 새 없이 제어서 쏜다.	
이덕홍	간재집 제2권	○ 귀갑선(龜甲船)이 있는데, 역시 적을 무너뜨리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의 제작 형식은 등 부분에 창검(槍劍)을 붙이고, 머리 부분에 쇠를 숨겨 설치하며, 머리 부분에는 판옥(板屋)을 두고 그 가운데 사수(射手)를 들어가게 하며, 옆으로는 사격하는 구멍을 내고, 아래로는 배의 내부로 통하게 하여 가운데는 총통(銃筒)과 큰 도끼를 두고 때려 부수기도 하고 철환(鐵丸)을 쏘기도 하며 활을 쏘기도 하고 총돌하기도 합니다. 부딪치는 자는 부서지고, 침범하는 자는 무너지게 되니, 적선이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그 계책(計策)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 배 위에도 판자방 잘도 만들었네(輕舳板作房)”

해외선박은 사신들이 외국으로 가서 그곳의 배를 보고 쓴 기록들로, 청나라 3건, 일본이 5건이다. 이양선은 이와 반대로 외국의 배가 국내로 표류해온 경우 지방관리들이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으로 보고하는 형식이다. 주로 규모와 외향을 묘사하고 있고, 판옥은 선원 등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집처럼 설명하고 있다.

4. 그 밖에 관련된 기록에 의한 판옥의 개념

건축과 선박을 제외한 판옥의 검색수는 총 26건으로 군사시설 8건, 정몽주의 시를 인용한 시문 9건, 시적표현 1건, 판옥인 4건, 기차와 벼루집 각각 1건이고, 일본의 판옥인지 통신사선인지 구분이 모호한 시 1건이다. <Table 2>

4.1 군사시설 기록을 통한 판옥의 인식 <Table 7>

군사시설은 총 8건으로 왜란 중 치열했던 진주성 전투가 관련이 4건으로 『포저집』35권, 『강한집』5권, 『선조실록』, 수정 『선조실록』에 각각 실려있다. 특히 조선군과 왜군의 전투시 공병 능력을 보여주는데, 언덕위에 세운 토옥인 ‘적굴’, 조망대인 ‘봉’ 등의 전투시설물이 언급되어 있다.

『예종실록』과 『선조실록』29년에는 여진족과 관련된 군사시설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다. 판옥을 위한 판옥을 각각 연대와 성위에 설치하였는데, 지붕이 없고 사다리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다.

『성호사설』23권 『간재집』2권에는 판옥을 이용한 군사시설에 대하여 적고 있다.

군사시설은 건축의 범주에 있기도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하였다. 군사시설 판옥의 특징은 지붕 유무와 상관없이 널빤지(板)를 이용하면 판옥으로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4.2 문학적인 표현을 통한 판옥에 대한 인식

앞서 2장에서 언급했던 고려 말에 정몽주가 일본에 갔을 때 지었던 시인 ‘매화 편 창가엔 아직 봄빛이 이르고(梅窓春色早) 판자집이다보니 빗소리가 유난하다(板屋雨聲多)’를 단순히 인용한 시문이 9건으로 역시 일본으로 사행을 떠났던 사신들에 의해서였다.

시적표현이라 분류한 1건은 『동문서』7권에 실린 우천계의 시로 아래와 같으며,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판옥을 ‘문틈’으로 해석하였지만, 본연구자는 이를 거미의 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별 연 년 연파가 가로막아(離別年年煙水隔)
거미줄 친 문틈에 달빛이 산란하고(蟪蛄板屋月紛紛)

『성호전집』24권, 『추강집』8권, 『해동야언』2권, 『암서집』10권에는 견훤의 시를 인용하며 판옥에 사는 사람인 몽골인을 교화의 대상인 오랑캐 보며 폄하시켰는데, 이는 당시 송을 격파한 원나라에 대한 유학자들의 반감을 담은 것이다. 이 밖에 김윤식은 『운양집』 11권에서 문방사우를 사람에 비유하는 시를 남겼는데, 이때 판옥은 벼루집이었다.

4.3 그 밖의 판옥에 대한 인식

고종 18년(1881년) 신사유람단 소속의 이현영은 『일시집략』을 통해 일본에서 처음 본 기차를 판옥이라 하였다. 이는 함경도지방의 지리서인 『북관기사』에서 영고인들의 수레집을 판옥이라 했던 것과 비슷한 시각이다.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익히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널빤지로 사방을 두르고 지붕을 이은기차의 객차나 마퀴달린 수레집도 판옥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7. Pan-ok: Military installations search in Korean Classics DB

구분	작자	서명	발제한 내용	비고
고전번역서	이익	성호사설 제23권	수성지구(守城之具) 요액(藥) 싸움에서는 적이 알기(空軍)를 사용하여 서로 충돌하면서 성을 무너뜨렸다. 알거나 길으로 판옥(板屋)을 둘러 포석(砲石)이 능히 뚫지 못하며, 사람이 그 속에 앉아서 수레를 운전하여 바로 성 밑까지 이르게 된다. 그 판옥 판에 쇠뿔을 장치, 수레를 이리저리 돌려 굴리면 아무리 단단한 성일지라도 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포저집 제35권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 황공(黃公)의 행장 25일에 적이 동문(東門) 밖에 흠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는 그 위에 토옥(土屋)을 지어 성안을 굽어보면서 총탄을 비 오듯 쏟아냈다. 그러자 공도 여기에 상대하여 성안에 높은 언덕을 쌓았는데, 초저녁부터 밤까지 갑옷과 전령(戰鎧)을 빔고서 적집 둘을 등에 지고 나르자 성안의 남자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허뿔밤 사이에 일을 다 마쳤다. 이에 대포를 발사하여 적의 토옥을 박살내니 적이 퇴각하였다. 적이 또 목(木棚)을 만들어 소의 생각자를 입히고는 각각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서 화살과 탄환을 막으며 성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왔는데, 공이 큰 돌로 분쇄하는 한편 활과 포를 뒤섞어 쏘자 적이 퇴각하였다. 적이 또 동문 밖에 큰 나무 두 개를 세우고 그 위에 판옥(板屋)을 지은 뒤 그 안에서 발사하여 불을 지르자 성안의 인가에 불길이 번졌다. 이에 공도 판옥을 지어 한나절 만에 완성하고는 대포를 쏘아 적의 판옥을 명중시키니 적이 또 퇴각하였다. 이때 비가 많이 와서 성의 한 모퉁이가 허물어지자 적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는데, 사천 현감(西川縣監) 김준민(金俊民)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공이 사물에 앙상해서 적집 둘과 불을 지어 나르며 쌓은 결과 무너졌던 성이 완전하였다.	진주성 전투
	이덕홍	간재집 제2권	행계소에 올린 소 도를 침부함 [上行在疏 井圖] 포구에서 적이 육지에 내릴 만한 곳에 한 칸 정도의 판옥(板屋)과 판구(板橋)를 세워 밖에는 진흙을 바르고 안에는 판자 창문을 만들어 사수를 숨깁니다. 아래에는 사격하는 구멍을 내고 위에는 의병(疑兵)을 만들어 움직이고 구부러다 봤다하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면 적들이 비록 철환을 쏘아도 사람은 상하지 않고 철환만 소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누를 10보 간격으로 사면에 모두 그렇게 하고 예닐곱 명의 사수를 숨겨 각각 그 힘을 다하게 하면 백만의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황경원	강한집 제5권	절충장군 충청도병마절도사 황공의 묘지명 서문을 아우르다 일 칸짜리 사다리 有梯十丈 그 위에 판옥을 올리니 上設板屋 공 또한 기묘한 계략을 내어 公亦出奇 심 오랑캐들을 다 내쫓았네 悉逐虜賊	진주성 전투
조선왕조실록	예종실록 1년 (1469년 8월 13일)		평안도 경차관 이순수가 치계 “신이 군사 3백 명을 거느리고서 강을 건너 야랑동에 이르러 장정의 경계를 보니, 시내에는 나무와 돌을 서로 섞어서 구장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척이고 너비가 4척이며, 평지에는 나무를 엮간아 놓았는데 너비가 1백여 척이며, 남쪽으로 10여 리 떨어진 높은 봉우리에는 나무를 엮간아 쌓아서 높이가 8척이고 사면의 너비가 각각 13척이 되게 연대(煙臺)를 쌓고 연대 위에 높이 5척의 판옥(板屋)을 만들었으며, 연대와의 거리는 혹은 20여리에, 혹은 15여 리인데, 장정(長鎗)으로부터 동쪽으로 장성부(長城府)의 운두인 연대(雲頭伊羅圖)와의 거리가 1백여 리이고 남쪽으로 구형 구차(仇擊口)까지의 거리가 60여 리입니다.”	평안도 국경지대
		선조실록 26년 (1593년 7월 16일)	적굴(敵窟) 언덕 위에 세운 토옥(土屋)을 파괴하였으나 적은 즉시 개수(改修)하였다. 이날 세 차례 전격해 온 것을 세 차례 다 물리쳤고 또 밤에 네 번 점전하여 네 번 다 격퇴하였다. 26일에 적이 또 동문(東門) 밖에 큰 나무 두 개를 세워 그 위에 판옥(板屋)을 만들어 놓고는 그 위에서 많은 화전(火箭)을 성 안으로 쏘아대니 성 안의 조가집이 일시에 연달아 불에 타서 연기와 불꽃이 하늘까지 펼쳐졌다. 27일에 적이 동문과 서문 밖 다섯 군대에 언덕을 축조(築壘)하고 그 위에 대나무를 엮고 봉(棚) 조망대(眺望臺)를 만들어 놓고서 성 안을 내려다 보고 탄환을 쏘아대니	진주성 전투
	선조실록 29년 (1596년 1월 30)	남부 주부 신충일이 서계를 올렸다. “신이 지난해 12월 15일 강계(江界)에 이르렀는데, (중략) 20일에 출발하여 21일 만포진(滿浦鎭)에 도착하였습니다.(중략) 22일 아침에 전 참사(僉使) 유염(柳堧)이 회관관(懷遠館)에 나와 있었는데, 두 호연(胡人)을 불러 주사(酒食)를 먹고 각각 미포(米布)를 준 후, 신은 향동사(鄕洞司) 나세용(羅世用)과 하계국(下界國) 및 진노(鎭) 강주(姜守)와 신노(臣) 춘계(春桂) 등과 함께 정오에 만포진을 떠나 연을 위로 암록강(暗綠江)을 건너 노추(奴酋)의 집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22일부터 28일까지의 지나는 노추의 일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1. 노추의 집은 소추(小酋)의 집 북쪽에 있어 남북을 향하여 안배되어 있었고, 소추의 집은 노추의 집 남쪽에 있어 북향하여 있었습니다. 1. 외성(外城)의 주위는 겨우 1리이며, 내성의 주위는 2마장쯤 되었습니디. 1. 외성은 먼저 돌로 쌓아 위가 2-3장의 높이며 또 연목(椽木)을 깔았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높이는 10척 가량 되었고 안팎에는 진흙으로 발랐으며, 처첩(雉堞)·사대(射臺)·격대(隔臺)·호차(壕溝)는 없었습니다. 1. 외성문(外城門)은 나무 판자로 하였고 자물쇠가 없이 문을 닫은 때에는 나무로 건너질렀는데 마치 우리 나라의 장군목(將軍木) 제도와 같았습니다. 위에는 적루(敵樓)를 설치하고 풀로 덮였으며, 내성문은 외성문과 같고 문루(門樓)가 없었습니다. 1. 내성의 축조 역시 외성과 같은데, 원철(垣塹)과 격대(隔臺)가 동문으로부터 남문을 지나 서문에 이르기까지 있으며, 성위에는 관망하는 판옥(板屋)을 설치하였는데 지붕이 없으며, 사다리를 설치하여 오르내리었습니다. 1. 내성 안에 또 목곽(木棚)을 설치하고 그 목곽 안에 노추(奴酋)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진족	
수정 선조실록 26년 (1593년 6월 1일)	적이 동문(東門) 밖에 토산옥(土山屋)을 짓고 그 위에서 성을 굽어보며 총탄을 발사하였다. 성안에서도 이미 미추 대하여 높은 언덕을 쌓았는데, 황진(黃進)이 적집 둘을 쳐 나르고 성안의 사녀(士女)들이 힘을 다해 쌓는 일을 도왔으므로 허뿔밤에 끝마쳤다. 그리하여 드디어 마추 바라보고 현자홍(玄子洪)을 쏘아 토옥(土屋)을 파괴하니 이에 적이 물러갔다. 그 이튿날 밤에는 만고 당기며 크게 싸우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다. 그런데 적은 또 나무책을 만들어 쇠가죽을 입힌 뒤 각자 질여지도록 하고 이기도 하면서 탄환과 화살을 막으며 성을 무너뜨리려고 전력을 기울였다. 이에 성 위에서는 비오듯이 활을 쏘고 큰 돌을 연달아 굴러내려서 격퇴시켰다. 그러자 적은 큰 나무 두 개를 동문 밖에 세우고 그 위에 판옥(板屋)을 만든 뒤 성안으로 화전(火箭)을 쏘아 보내니 성안의 조옥(椒屋)에 일시에 불이 번졌는데, 황진이 또 마추 대하여 나무를 세우고 판자를 설치하여 총을 쏘니 적이 곧 중지하였다.	진주성 전투		

5. 결론

판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판옥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사전에서 정확히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고전종합DB에서 판옥으로 검색된 665건의 문헌 중, 건축과 관련된 65건, 선박과 관련된 92건, 그 밖에 기타로 분류한 26건 등 총 183건의 조선 시대의 기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판옥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그를 통한 판옥에 관한 정의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우선 건축으로 분류된 65건의 판옥은 용도에 따라 살림집, 종교시설, 장판옥, 감옥 등 다양하게 쓰였다. 특히 살림집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문을 쓴 작자들이 관리 출신 문인들로 그들의 부임지에서 본 풍경과 감상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북한 지역의 함경도 만포와 경기도 파주, 충청도 아산에 석판집이 남아 있고, 강원도와 울릉도에는 너와집이 있으며 안동에는 까치구멍집이라는 판벽집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 문인들이 남긴 기문 속 판옥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Fig.3>¹⁰⁾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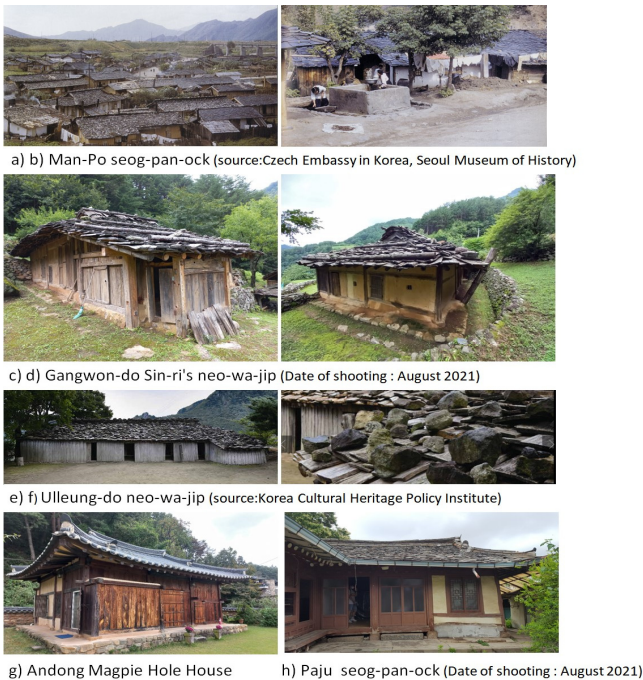


Fig. 3. Various Pan-ock in Korea

그 외 외국의 사례로 사행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기록된 일본 판옥들이었는데, 관사와 숙소는 물론 일반인들의 살림집, 숙박시설, 군막, 무대시설, 사찰과 신사의 건물, 성주의 집 등 다양한 형태와 쓰임새를 갖고 있었다.

두 번째로 선박과 관련된 판옥은 총 92건으로 조선 수군의 전선이 대다수이고, 통신사선과 관선, 사신들이 청과 일본에 가서 목격한 선박과 국내에 표류한 이양선들이었다. 조선 수군의

전력함이 판옥선이기 때문에 관련 문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대부분은 언급에 그치는 경우이다. 그러나 판옥을 업무와 숙박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전투와 비전투시 활용방식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통신사선은 사행으로 일본을 다녀오는 사신들이 이용한 배로 여기서 판옥은 단순히 판옥선이라 불리는 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업무와 숙박의 기능을 하는 집의 개념이었다. 해외 선박과 이양선을 목격한 사신과 지방관리들은 주로 규모와 외형을 묘사하고, 판옥은 선원 등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집처럼 설명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로 분류된 군사시설의 판옥은 지붕 유무와 상관없이 널빤지(板)를 이용하면 판옥으로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벼루집을 판옥으로 비유한 시를 통해 널빤지로 막힌 공간을 만들면 판옥으로 인식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신사유람단은 일본에서 처음 기차를 접하고 객차를 판옥이라 하였는데, 함경도에서 영고인들의 수레집을 판옥이라 했던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익히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널빤지로 사방을 잇고, 지붕을 덮은 기차의 객차나 바퀴달린 수레집도 판옥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판옥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판자로 사방을 이어 둘러서 벽을 만들고 허술하게 지은 집”이라는 현재의 단순한 정의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의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들을 고려하여 “살림집, 종교시설, 왕릉과 사찰의 부대시설 및 감옥 등으로 그 쓰임새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벽면이나 지붕만을 널빤지로 잇거나, 벽과 지붕 모두를 이은 것”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그 의미와 범주를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의 표준국어대사전과 건축사전에 반영시켜 판옥에 관한 정의를 확대할 것을,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한다.

참고문헌

1. 김라니, 제주 정의현[성읍]의 건축문화유산과 그 진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 김라니, 한동수,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관련 기록물을 통한 목조 건축과 목선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3(4), 2021.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4.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IV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2014.
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6.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7. 한동수, 김라니,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 제주학연구, 73, 2021.
8.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체코슬로바키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본 정전 후 남과 북, 서울역사박물관, 2013.
9.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지나간 시간을 읽다-민속문화재 이야기를 읽다, 문화재청, 2017.

10) a),b) 사진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체코슬로바키아 중립국 감독 위원회가 본 정전 후 남과 북』, 서울역사박물관, 2013, pp.151-155.

11) e),f) 사진출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지나간 시간을 읽다-민속문화재 이야기를 읽다』, 문화재청, 2017, p.306.

접 수 일 자 : 2022. 10. 10
 초 심 완 료 일 자 : 2022. 11. 06
 계 재 확 정 일 자 : 2022. 11. 07